



운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㉔

법구(法具의 종류(2) 법고(法鼓) · 운판 · 목어 · 백추 · 경(磬)

선의 세계는 언어문자의 강 저편에 있다. 말을 뜻 그러나 어렵다. 그래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한다.

법종(梵鐘)이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法具)라 하면, 법고(法鼓)는 축승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이다. 운판(雲版)은 날아다니는 짐승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이고, 목어(木魚)는 물속의 어류들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이다.

복을 선종사원에서는 '법고(法鼓)'라고 한다. '법고'라고 부르는 것은 세속의 복과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더불어 사원에서 울리는 북소리는 단순한 북소리가 아니라, '법음(法音)을 전하는 소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법고는 산문과 불전 사이의 우측에 있는 고루(鼓樓)에 걸여 두고 친다. 법고는 대종을 집결시킬 때, 법요식 등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상당법어(上堂法語)와 조참(早參, 아침 법문), 만점(晩參, 저녁 법문) 등 소참(小參, 수시설법)과 보설(普說, 대중 법문), 입실(入室, 독참, 개별적인 지도), 공양 등이 있을 때 친다. 항상 대종(大鐘, 범종)과 함께 치며, 순서는 대종 다음이다.

또 법당(설법장) 내에도 법고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설법 할 때에 쓰는 북(법고)으로서 법당 동북쪽 모서리에 두고, 하나는 차 마실 때 치는 북, 곧 다고(茶鼓)로서 법당 서북쪽 모서리에 둔다.

주지(방장)의 정식 법문인 상당법어가 있을 때는 마치 드림 치듯 강약(強弱)을 주어가면서 모두 3회를 치는데, 그 방법은 각 회마다 조금씩 다르다. 첫회는 좀 오래 치고 다음은 조금 짧게 치는데, 주지(방장)가 법당에 당도해 법좌에 오르면서 잠시 멈추었다가 두 손에 각각 북채를 쥐고 크게 세 번 연타(連打)한다. 소참 때는 1회만 치고, 보설 때는 그냥 천천히 '쿵' '쿵' 다섯 번 치고, 입실 때도 '쿵' '쿵' 세 번을 친다.

다고(茶鼓)는 총림의 조사(祖師) 기일(忌日)에 다례(茶禮)를 올릴 때, 또는 모든 대중이 차를 마실 때 치는데, 한 차례(1회) 치고 점심 공양을 알리는 재고(齋鼓)는 상당법어 때처럼 3회를 친다. 울력이 있음을 알리는 보경고(普請鼓)는 1회, 목욕을 알리는 육고(浴鼓)는 4회 친다. 새벽에 치는 북을 통칭해서 '신고(晨鼓)'라 하고, 저녁에 치는 북을 '혼고(昏鼓)'라고 한다. 법고는 범종과 함께 하루의 일과를 알리기 위한 도구이다.

운판(雲版, 雲版)은 선종사원에서 고원(庫院, 주방)이나 재당(齋堂, 주방 겸 식당) 앞에 걸어 놓고 공양 때가 되었음을 알릴 때 치는 도구이다. 청동(靑銅)으로 된 판인데, 구름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운판'이라고 한다. 또 판(版)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여 '대판(大版)'이라고도 한다. 재당에서 불을 지필 때 신호로 3번 친다고 하여 '화판(火版)'이라고도 하며 공양 때 길게 3회 친다고 하여 '장판(長版)'이라고도 한다.

고원이나 재당에서 운판 소리가 나면 종과 북을 친다. 또 승당에서는 재당에서 운판 소리가 나면 비로소 좌선을 마친다(放禪). 주방이나 식당은 청결이 우

선이므로 모든 신호는 말보다는 운판으로 한다. 운판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3척(90센티 가량)쯤 된다.

운판 외에도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방장판은 방장실 앞에 걸어두고 치는 판이고, 수좌료판은 수좌실에서 치는 판이며, 중료(衆寮, 큰 방, 대중방)에는 전판(前板), 외판(外板), 내판(內板), 중소판(中小板) 등 무려 4개나 있다. 목판(木板)도 각 당우마다 있다. 당우의 목판은 주로 당주(堂主)나 빈객이 시자들을 부를 때 친다. 소소한 신호는 모두 목판으로 한다. 우리나라 운판 중 유명한 것은 남해 운문사 운판과 국립박물관 소장 쌍용문 운판 등이다.

운판의 모양도 선종 5가(五家)마다 각각 다르다. 임제종에서 사용하는 운판은 횡장방형(橫長方形, 가로 직사각형)이고, 조동종은 수장방형(豎長方形, 세로 직사각형), 법안종은 정(正)삼각형, 위양종은 하반원형(下半圓形, 아래 부분 반반 원형), 운문종은 원형이다. 치는 때와 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목어(木魚) 역시 선종사원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법구 가운데 하나이다. '어고(魚鼓)' '어판(魚板)'이라고도 하며, '방(梆)' '어방(魚梆)'이라고도 하는데, 고원이나 재당에 달아 두고 공양을 알릴 때 치는데 운판 다음에 친다. 모양은 나무를 깎아 물고기처럼 만든 다음 배 부분을 파내어 두 개의 나무대기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 (백장청규(百丈淸規) 주(註)에 따르면, 물고기가 항상 밤이나 낮이나 눈을 뜨고 있는 것과 같이, 수행자 역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상징한다. <무상비요(無上秘要)>에서는 '목어(木魚)의 맑은 소리는 속세 사람들을 일깨워 깨닫게 한다'라고 했다. 목탁(木鐺)은 고기처럼 생긴 큰 목어를 축소시켜서 둥글게 만든 것이다. 목탁은 주로 불전(대웅전)이나 각 전각에서 기도·염불·독경할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도량서, 공양, 울력이 있을 때 그리고 대중을 집결시킬 때 목탁을 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종(鐘)과 북, 경(磬, 鑿子)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목탁을 많이 사용한다.

목탁(木鐺)은 목어(木魚)에서 변형된 법구이다. 그래서 목탁 표면에 물고기를 조각하는데 우리나라 목탁에는 없다. 목탁의 종류는 포단(蒲團, 방석) 위에 놓고 치는 큰 목탁과 직접 들고 치는 작은 목탁

법고, 상당법어 때 강약 조절하며 3회

운판 모양, 선종 5가마다 제각각 특색

이 있다. 또한 큰 목탁에는 매달아 놓고 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중을 모으거나 공양할 때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된다. 포단 위에 놓고 치는 것은 불전(대웅전)에서 염불·예불·염송(念誦)·독경시에 사용한다. 오른 손으로는 목탁을 치고, 왼손으로는 경전이나 염불문을 넘긴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포단 위에 얹어 놓고 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든 작든 모두 손에 들고 친다.

백추(白椎, 白槌)의 백(白)은 '알리다' '고하다'는 뜻이고 '추(椎)'는 '방망이로 치다'라는 뜻

법종·법고 모두 치면 대환영 뜻



선암사 스님이 저녁예불을 알리는 법고를 두드리고 있다.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법구이다. 주로 법회가 곧 시작됨을 알리는데 사용하며, 그 의미는 '조용히 해 달라' '시선을 집중해 달라'는 뜻이다. 사회자가 치기 때문에 사회복 역할도 한다. 주로 선원총림에서 행사가 있거나 주지의 법어, 새로 주지에 선출·임명돼 진산식(취임식) 후 처음 개당 설법을 할 때 사회자가 이 추(椎)를 친다. 사회자가 추를 친 다음 개식(開式) 멘트를 하며 그를 '백추사(白椎師)'라고 한다.

오늘날도 마한가지이지만 사회자 곧 백추사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백추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송대 특히 남송시대의 대표적인 선승으로는 목조선을 제창했던 천통사의 광지정각(1091~1157)과 간화선을 제창했던 대혜종고(1089~1163)가 있다. 두 선승은 개인적으로는 지기(知己)였지만, 사상적으로는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이즈음 대혜 선사는 금나라에 대한 주전파로 몰려 장구성과 함께 형주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그는 귀양 15년 동안에도 목조선에 대한 비판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목조선(默觀邪禪, 목조선은 샛된 선이다)' '고목사회선(枯木死灰禪, 고목처럼 죽은 선이다)'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조선은 올바른 선이 아니라는 것이 대혜 종고의 견해였다. 53세에 시작된 귀양살이는 15년만인 68세에 끝난다. 만년을 거의 귀양지에서 보낸 셈인데, 이 기간 동안 그는 <정법안장> (대혜서장) 등 명저를 남긴다.

한편 그는 귀양살이에서 풀려남과 동시에 남송 5산 가운데 제4위인 아육왕사 주지(방장)에 임명된다. 이때 광지정각은 나이 70세로, 남송 최고의 선승이 되어 천통사 방장으로 있었다. 대혜 선사는 장고(長考) 끝에 그에게 자신의 진산식(취임식)에 백추사(白椎師, 사회자)가 되어 줄 것을 청탁한다. 보통 주지 취임식에서 백추사는 그 지역 고승에게 의뢰하는 것이 상례이기는 했지만, 광지정각에게 의뢰한 것은 뜻밖이었다. 아육왕사와 천통사는 걸어서 두 세 시간 거리. 광지 정각은 노구를 이끌고 대혜 종고의 취임식에서 백추를 잡았다. 이날 참석한 불

中·日, 목탁 대신 종·북·경 주로 이용 선임 주지 취임 때 모든 명기 울려 환영

자는 약 만 명, 천통사에선 많은 식량을 아육왕사로 보냈다고 한다.

추(椎)를 주침(椎刺)이라고 한다. 추(椎)는 의사봉처럼 생긴 방망이이고, 침(針)은 높이 3, 4척(尺, 약 1미터 가량)되는 팔각형의 기둥인데, 그 위를 추(椎)로 친다. 선원에서 주로 설법 등 법요식을 시작할 때 치는 도구로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한다. 추를 치면 대중들은 정숙한 자세로 전면을 주시한다. 인도의 '건추(健椎)'와 같다고 보면 된다.

경(磬)은 '경자(磬子)'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 일본의 총림에서는 목탁 못지않게 사용한다. 주로 독경, 예불, 염송(念誦)할 때 운율을 맞추기 위해 친다. 소재는 동(銅)으로 그 소리가 범종 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섬세하다. 마치 천상을 연상할 정도이다. 크기와 모양은 우리나라의 작은 물동이와 비슷하며, 형질을 썩 방망이로 독경 소리에 맞추어 살살 친다.

경쇠는 경(磬)의 일종인데 경보다는 훨씬 작은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불을 올릴 때, 또는 대중의 일어서고 앉고 절하는 행위를 인도하기 위해 치는 법구이다. 원래 중국의 악기였지만 불교로 수용되면서 의식법구(儀式法具)로 사용되었다. 경쇠를 칠 때는 목탁을 치지 않는다. 늦쇠로 주발처럼 만든 것인데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자루를 달고 노루 뿔 같은 것으로 쳐서 울린다.

총림의 모든 명기(鳴器, 치는 기물)는 기강 담당인 유나가 관장한다. 명기(鳴器)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이고 대중은 그 신호는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임 주지가 취임하기 위해 산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입원(入院)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총림에 있는 모든 명기를 일시에 울린다. 범종, 법고는 물론이고 각종 판(版)과 목어 등도 모두 친다. 대환영의 뜻이다.

운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ot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 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제조방법) 특수 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한인원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암종 위기 식을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정상익 저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옷에도 공함
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추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
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
을 만들었습니다.

▶옷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잡다한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
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